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여전히 어딘가 어색하다. 이미 ‘성평등’이라는 더 넓은 개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양성’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어쩌면 그것은 아직 우리의 삶이 그만큼 충분히 평등해지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분 안에서조차 균형이 맞지 않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두 성’을 계속해서 불러내고, 그 사이의 간극을 설명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나는 오랫동안 ‘K-장녀’로 살아왔다. 집안에서 장녀라는 위치는 단순한 출생 순서를 넘어 하나의 역할이었다. 식사 준비를 돕고, 동생을 챙기고, 엄마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되었고, “엄마를 도와야지”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삶의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을 반복할수록 이상한 감각이 남았다. 왜 나는 항상 ‘돕는 사람’이어야 할까? 이 집은 나의 집이기도 한데, 왜 어떤 사람은 책임지고 어떤 사람은 보조하는 위치에 머무는 걸까. 이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의 삶이 확장될수록 더 또렷해졌다. 성평등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성의 삶과 돌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점점 더 일상 속의 불균형을 민감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성평등은 머리로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실천이라는 것을.

결혼을 하고, 가족을 이루며, 나는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익숙한 방식대로라면, 나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돌봄과 가사를 맡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그대로 따르지 않기로 했다. 대신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기준 하나를 세웠다. “도와준다”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것.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도와준다’는 말에는 이미 주체와 보조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누군가는 원래 해야 할 사람이 되고, 다른 누군가는 여유가 될 때 거드는 사람이 된다. 하지만 ‘함께 한다’는 말은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든다. 처음부터 책임이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유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아침은 조금 다르게 시작된다. 남편은 첫째의 식사를 준비하고, 나는 둘째와 셋째의 등교 준비를 맡는다. 각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그날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된다. 출근이 더 이른 사람은 그만큼 집안일에서 빠지고, 대신 퇴근이 빠른 사람이 저녁을 준비한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서로의 하루를 고려하며 균형을 맞추려 한다. 물론 이 과정이 항상 매끄러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한쪽으로 부담이 쏠리기도 하고,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한다. “지금 누구에게 책임을 지어지고 있는가?”, “혹시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때로 불편하고, 때로는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관계를 다시 조정하고, 더 평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가 된다.

나는 이 질문이야말로 성평등 실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완벽한 분담표나 이상적인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은 거창한 정책이나 제도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실천은 결국 사회 구조 속에서 다시 의미를 갖는다. ‘누가 돌봄을 책임지는가’, ‘어떤 노동이 가치 있게 인정받는가’라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불균형을 인식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

가지 않는 감각을 갖게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감각이 확장될수록, 개인의 실천은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사회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갖는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의 방식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야말로 앞으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희망이라고 믿는다. 제도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를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변화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반대로, 일상에서의 작은 질문과 실천이 쌓일 때, 사회는 조금 더 평등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양성평등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 누가 밥을 차리고,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드는지. 세탁기 앞에서 시작된다. 빨래가 쌓였을 때 누가 그것을 ‘발견’하고 행동하는지. 아이를 재우는 순간에도 드러난다. 아이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역할이 특정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는지.

이 모든 장면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정치적이다. 어떤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어떤 노동이 보이지 않게 처리되는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소한 장면들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성평등 실천이라고 믿는다.

나는 더 이상 ‘엄마를 도와야 하는 딸’로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아내’라는 역할에도 머물고 싶지 않다. 대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책임지는 관계를 만들고 싶다.

또한 나의 아이들이 다른 기준 속에서 자라기를 바란다. 특정한 성별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경험. 돌봄과 노동이 특정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불균형을 느꼈을 때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감각.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누가 주체이고 누가 객체인지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주체로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지탱하며 손을 맞잡을 때, 우리는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러한 변화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기에, 계속해서 말하고, 묻고, 실천해야 하는 상태. 그렇기에 이 단어는 낡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언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작은 실천을 반복한다. 누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더 평등한 삶의 방식을 배워간다.